“한암·지암, 월정사·한국불교 구한 선지식”

자현 스님, 오대산 특별 학술세미나서 강조

무리한 투자로 거대 부채 발생
한암, 월정사 이거해 부채 정리
조선불교, 박문사 귀속 움직임에
조선불교조계종 창종…야욕 분쇄
제27대 한국불교학회장 취임식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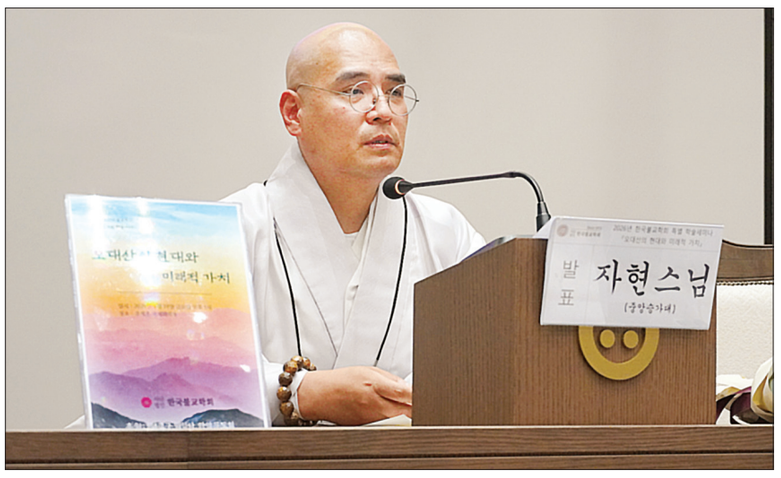
“한암과 지암은 부채 문제에 빠진 오대산과 월정사를 구했고, 다시금 일제에 예속될 뻔한 한국불교를 구했습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한국불교학회장)은 6월 1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학회 주최로 열린 오대산 특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한암과 지암의 오대산 재정립과 조계종의 창종’을 통해 한암 스님과 지암 스님이 어떻게 월정사와 한국불교를 지켜냈는지를 조명했다.

자현 스님에 따르면 1920년대 월정사 주지인 홍보룡과 와세다 대학 출신 용창은은 강릉 포교당을 건립하고 광동권업주식회사를 세우는데, 회사 쪽에 무리한 투자로 인해 30만엔이라는 막대한 부채가 생기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인물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복역하고 월정사에 주석하고 있던 지암 스님이다.

지암 스님은 사채정리위원이 돼 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오대산 월정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봉은사 판전 조실로 있던 한암 스님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에 한암 스님은 1926년 오대산으로 이거해 월정사 조실이 되고 1929년 정골탑묘찬양회를 구성해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 찬양회 사업을 통해 월정사는 1936년 9월 부채를 전부 상환하기에 이른다.

자현 스님은 “찬양회 구상은 한암 스님이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실무를 지암 스님이 주도했다”면서 “부채 문제 해결은 자칫 매각될 위기에 있던 월정사를 구한 큰 업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한국불교학회장)은 6월 19일 한국불교학회 오대산 특별 학술세미나에서 ‘한암과 지암의 오대산 재정립과 조계종의 창종’을 발표했다.

1936년에는 일제가 조선불교 전체를 이토 히로부미 추모사찰인 남산 박문사에 귀속시키려는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를 전해 들은 지암 스님은 1937년 2월 31본사 의장이 돼 대응책 마련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한암 스님의 지시로 일제의 통합 계획을 분쇄하기 위해 조선불교조계종이 창종되며 총본산으로 태고사(현 조계사)가 건립된다. 초대 종정에는 한암 스님이 추대됐으며 종무총장(현 총무원장)에는 지암 스님이 임명됐다.

자현 스님은 “조선불교조계종은 해방 이후 정화 과정에서 한국불교조계종으로 바뀌며, 이 명칭이 정화 이후인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으로 연결된다”면서 “조계종의 명칭은 한암 스님과 지암 스님의 일제 야욕을 분쇄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돼 현대에 이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선지식의 업적이 일제강점기를 넘어 오늘날까지 유효한 탁원한 위법망구의 노력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상찬했다.

‘오대산의 현대와 미래의 가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조선불교조계종 초대종정으로서 한암 중원의 종단 운영관(박진영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 △‘월정사 강원과 조지훈의 돌의 미학’(김경집 동국대 연구교수) △‘만화의 오대산 중흥과 정신적 배경(윤창화 민족사 대표)’ △‘오대산 불교 기록화 사업과 정념(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오대산 월정사의 불교적 지향과 브랜드 가치(이재수 동국대 특임교수)’ 등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학술세미나에 앞서 제27대 한국불교학회장으로 연임된 자현 스님의 취임식도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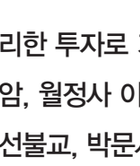
자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학회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스님은 “학회의 제도와 운영 구조를 더욱 안정적으로 정비해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학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학술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늘 개최되는 특별 학술세미나는 이러한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라며 “이번 세미나가 전통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세미나장을 찾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인사말에서 자현 스님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사부대중의 성원에 힘입어서 학회장으로 연임한 만큼 불교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학술세미나를 통해 전환의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새로운 지혜와 원력이 다시 한 번 월정사에 생겨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취임식에서는 한국불교학회 발전을 위한 기금 전달이 이어졌다. 이날 자현 스님은 1000만원의 기금을 학회에 전달했으며 혜묵·승우 스님이 200만원, 아랑주 보살이 500만원,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소이회가 500만원, 영법심(울산 영평선원) 보살 1000만원을 각각 학회에 기부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송곳을 버려야 하늘이 보인다

⑯ 사추지견(捨錐至見)

捨 錐 至 見

〈능엄경〉 제2권에는 인간의 편견과 오만을 일깨우는 인상적인 비유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작은 송곳을 손에 쥔 채, 그 끝에 뚫린 가느다란 구멍을 눈에 바짝 대고 하늘을 바라본다. 좁은 구멍너머로 보이는 하늘만 오래 들여다보던 그는 마침내 착각에 빠진다.

“아, 하늘이란 송곳 구멍처럼 작고 둥근 것이구나!”

부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을 두고 ‘사추지견(捨錐至見)’이라 말씀하신다. 손에 쥔 송곳을 과감하게 던져 버려야[捨錐], 비로소 가없는 하늘 전체를 온전히 볼 수 있다[至見]는 뜻이다.

우리 또한 저마다 삶의 궤적 속에서 벼려낸 ‘송곳 구멍’ 하나씩을 손에 쥔 채 살아간다.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익숙한 책과 매체, 몸담아온 종교와 지역, 그리고 오랫동안 굳어진 가치관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그 좁은 시야에 비친 세상을 전부라 여기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곤 한다.

이는 동양고전에서 말하는 ‘정저지와(井底之蛙)’와 다르지 않다.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속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다. 서양 철학자 베이컨의 ‘동굴의 우상’과도 통하고,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확증 편향’의 실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타인의 삶을 마주하면 이해하려 하기보다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단정하며 쉽게 선을 긋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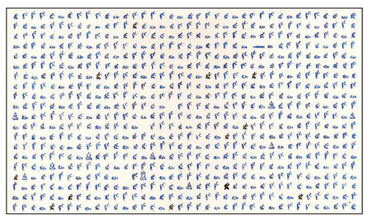
인간이 지닌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걸작 ‘라쇼몽’이다. 영화는 숲속에서 벌어진 한 사내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다룬다. 흥미로운 것은 사건을 둘러싼 증언들이 서로 완전히 엇갈린다는 점이다. 도적과 아내, 심지어 무당의 입을 빌려 나타난 죽은 사내까지 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본 것만이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일부러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자의 입장과 경험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사건을 바라볼 뿐이다. 그리고 자신이 본 파편을 진실의 전부라고 믿는다. 영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 인식의 근원적 한계를 날카롭게 드러낸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저마다의 ‘라쇼몽’을 찍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각자의 송곳 구멍으로 세상을 재단하며 자신이 본 조각만이 진실이라고 고집하는 사이, 광활한 하늘은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러니 이제 내가 그토록 옳다고 믿으며 움켜쥐고 있던 신념의 송곳을 잠시 내려놓아 보자. 잠시 스마트폰을 끄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자. 좁은 경험의 구멍을 통해 세상을 판단하던 습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내 생각의 벽에 가려 보이지 않던 타인의 아픔이 보이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넓은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본래면목 찾는 구도 여정, 화폭에 담다

부산 ‘O갤러리’ 개관 기념
박청용 개인전 ‘眞覺’ 개최


박청용 작가의 작품 ‘기도하는 사람들(2026)’.

수행과 성찰로서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박청용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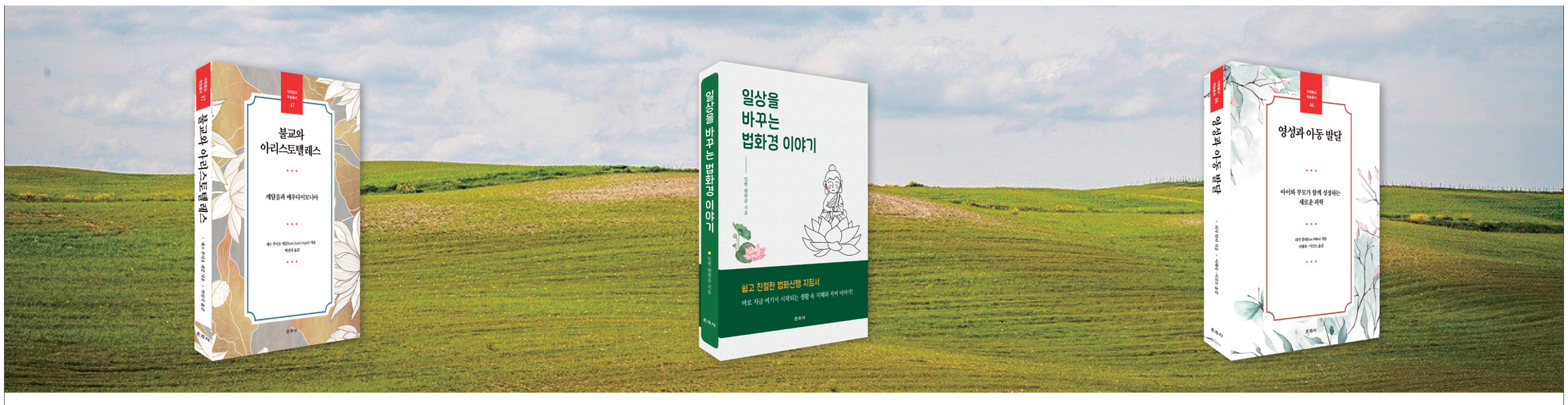
부산 해운대 O갤러리(대표 오지원)는 “개관을 기념해 수행과 자아성찰을 주제로 작업해 온 박청용 작가의 개인전 ‘진각(眞覺)’을 6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7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작가는 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가로, 오랜 시간 수행과 사유를 바탕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과 마음의 근원을 탐구해 왔다.

‘진각(眞覺)’은 참된 깨달음, 즉 본래의 마음을 자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전시는 외부의 구원이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의존이 아닌,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고 수행을 통해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을 작품으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에는 장엄 시리즈를 비롯한 대표 연작 및 신작 20여 점을 선보인다. ‘장엄 시리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시간의 깊이와 ‘백만 번의 기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대표 연작이다.

O갤러리는 “박 작가의 작품 속에는 불교의 공(空), 무아(無我), 자력수행(自力修行)의 정신이 현대적 조형언어로 구현돼 있다”면서 “관람객들은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 지혜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만남!
불교와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의 불교적 ‘깨달음’과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철학적 모색!
세스 주이호 세갈 지음, 박찬국 옮김/신국판/312쪽/값 22,000원

쉽고 친절한 법화신행 지침서!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23개의 주제어, 즉 ‘지혜’, ‘인연’, ‘불성’, ‘인과’, ‘공덕’, ‘보살행’ 등의 개념으로 풀어내, 일상 속에서 내 마음속 부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함현준 지음/신국판/416쪽/값 25,000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과학!
영성과 아동발달
불안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데 필요한 것은 내면의 힘이다. 따라서 과학으로 입증된 영성이 아이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삶의 회복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이다.
리사 밀러 지음, 이혜숙 · 이선모 옮김/신국판/528쪽/값 3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